

## 샤먼의식과 희생 제의로 본 『이여도』에 대한 고찰

강 준 수

**Kang, Jun-soo.** “A Study on *Ieodo* from the Point of Shaman Ritual and Offering of Sacrifice.” *Literature and Religion* 23.3 (2018): 1-20. Prin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sacrificial aspects and the meaning of *Ieodo* to the Jeju people in Lee, Chung-jun’s *Ieodo* through the Shamanic approach. *Ieodo* is the object of Shamanic worship which has used as a means of overcoming natural human desire and fear of death, and at the same time, is a source of power to live in reality in this work. Jeju people’s strong obsession with *Ieodo* and religious belief are beyond logic, because they are Shamanic traditions deeply rooted in the process by which Jeju people fight the rough seas to save their lives for many years. The woman of “*Ieodo*”, the bar, plays the role of a Shaman and sings a song about *Ieodo* in a sad attitude as a charm to comfort the souls of the dead and the living. These Shaman factors must be unreasonable and contradictory in modern society. However, the real life is also not logical at all, for Jeju people who live in the wild seas. Therefore, Jeju people maintain a lasting relationship with *Ieodo* as the foundation for healing and purifying the difficulties and sorrows of irrational and contradictory reality. In conclusion, *Ieodo* is the space in which Jeju people satisfy the lack of reality and dream of an ideal world with life comfort.

**Keywords:** Lee, Chung-jun, *Ieodo*, Shamanism, Shaman, Ideal World

Notes on Contributor:

Jun-soo Kang is Assistant Professor of Tourism at Anyang University. He teaches Principles of Travel Agency Management, Principles of Performing Arts Tourism, and Principles of Korean Wave Tourism. He is currently working on Tourism, Culture Contents, and Comparative Literature.

Email: kangminsk@anyang.ac.kr

## 1. 서론

이청준의 『이어도』는 중편소설로서 1974년에 『문학과 지성』에 연재된 작품이다. 이청준은 이 작품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피안의 세계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어도』라는 작품은 제주도의 신문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자의 해상 실종 사건을 추적해나가는 이야기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청준은 이 해상에서의 실종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어도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작중 인물의 탐색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 이미지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이미지는 독자들이 이 작품에 깃들여 있는 샤머니즘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연과 인간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개념이었다(Frye 33). 샤머니즘을 숭배했던 고대인들에게 자연은 곧 인간이고, 인간이 곧 자연으로서 양자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샤머니즘을 숭배했던 고대사회에서 자연과 인간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존재했다(강준수 7). 이 작품에서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에게 집단적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공통의 신앙체계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이어도는 합리성을 동반한 현실적 시선으로는 감지될 수 없는 원시 종교적 제의적 장치이며, 인간의 본질적이고 원초적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시켜줄 수 있는 구원적인 형태의 공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주 사람들에게 이어도는 절대적인 원시 종교적 신앙체계와도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과 피안을 경험할 수 있는 이승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적 공간인 것이다.

원시 종교적 신앙체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단군(檀君)을 빼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의 시조인 단군은 우리민족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왔고, 그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종교현상을 수행하는 고대 샤먼이며 무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동식 25). 문학 작품 속에서 구현되는 샤머니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긴밀하게 자연 친화적 관계를 갖고 있는 샤머니즘은 문학작품 속에서 그 자체로 비합리적인 측면이 배제된 채,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김윤식 6). 그러나 필자는 오

랜 세월 동안 민중의 삶과 함께 해온 샤머니즘적 전통을 통해서 작중 인물을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인식과 탐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청준의 『이어도』를 분석해보는 것도 문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이청준의 『이어도』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김혜영은 『이어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어도가 지니고 있는 공간적 환상성에 주목하고 있다(김혜영 310). 장양수는 『이어도』를 무속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작중 인물인 천남석의 죽음을 삶에 대한 성찰과 의미 추구와 원초적 삶의 공간인 낙원 복귀로 해석한다(장양수 201). 그리고 김종희는 『이어도』와 『비화 밀교』라는 작품의 비교를 통해서 유토피아적 소설이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상상력의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김종희 385). 김종주는 작중인물을 통해서 이어도에 대해서 탐문해나가는 과정을 정신분석적 접근 방식으로 풀어 나가고 있다(4).

사면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이어도』가 동일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 다른 작품들과의 차별성은 이어도라는 섬이 제주도민에게 갖는 의미를 사면의 성소인 알흔 섬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역할을 투영시키면서 사면적 이미지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청준은 사면의 기능과 역할이 갖는 이미지를 이어도로 재현시키면서 추상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제주도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미지로 재현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원시 사회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 인간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샤면을 통한 주술 행위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여전하며,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전히 샤머니즘적 주술 행위가 제주도에서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술적 행위의 매체로서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의 원초적 욕망과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재현시켜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어도가 제주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의 공간이며, 이 공간이 지니고 있는 구원, 정화, 그리고 희생제의를 통한 평안을 추구하는 주술적 공간으로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샤머니즘의 시선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 II. 구체화된 사면의 공간

오랜 옛날부터 인간은 낮은 세계 및 낮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비감을 지니고 살아왔다. 이러한 낮은 공간이 『이어도』에서는 이어도라는 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제주도과 같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항해 중에 만난 태풍과 해일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낸 수중의 섬에 대한 목격담을 통해서 수중 공간인 용궁을 상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이어도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도 구체화되는 것이다(이혜화 80). 2주일간의 파랑도 수색작전이 끝나가는 밤에 천남석과 선우중위가 나눈 대화 내용에서 이어도에 대한 제주도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해볼 수 있다.

“선우 중위도 아시겠지만 이어도란 원래 이 제주도에선 사람이 죽어 저승으로 가서 그 저승의 삶을 누린다는 죽음의 섬이 아십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이어도가 정말 죽음의 섬이 분명할 거라는덴 제법 그럴듯한 소문까지 나도는 편이죠. 이곳 뱃사람들 가운데 꿈에선지 환각에선지 가끔 그 섬을 본 사람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한 번 섬을 보게 된 사람은 예외 없이 며칠 후엔 곧 세상살이를 그만두고 만다는 겁니다. 섬을 한번 보기만 하면 누구나 곧 그 섬으로 가고 만다는 거지요. 그게 죽음의 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제주도 사람들 사이에선 또 그 죽음의 섬을 이승의 생활 속에서 설명하려는 망측스런 버릇들이 생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식한 말로 이어도의 꿈이 있기 때문에 현세의 고된 질곡들을 참아 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sup>1)</sup>

고통이란 것은 삶에 내재된 짐으로서 삶 자체를 억누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오주리 117).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어도는 현실의 고통과 무게를 견디어낼 수 있는 힘으로서 이어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어도는 단순한 섬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버팀목으로서 자리하고 있으며 외지인들이 파랑도 수색작전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 사람들

1) 이청준, 『이어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5), 115-16. 이후 본문 인용은 페이지 수만 기입하고자 한다.

에게는 파랑도가 아닌 이어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어도는 거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공간으로서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정신적 고향이다. 따라서 샤머니즘의 시각에서 볼 때, 이어도는 샤머니즘의 성소이고, 태고의 원시 자연을 유지하면서 징기스칸이 태어난 성스러운 공간이고, 샤먼의 성지인 바이칼 호수의 알혼섬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알혼섬은 섬 전체가 샤먼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6~10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고분과 벽화와 샤먼의 유물이 아직도 출토되는 곳입니다. (김봉준 204)

알혼섬은 현재까지도 모든 동아시아에 퍼져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굿을 수행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샤먼들은 이곳에 있는 브루한 바위에서 굿을 하면서 현실 세계의 안녕이나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청준은 이어도를 신비함, 성스러움, 그리고 현실의 고통을 치유해주는 신성한 장소로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알혼섬과 이어도의 이미지는 상호 연결될 수 있다.

〈그림 1〉 알혼섬에 있는 영혼의 메카 브루한 바위(불칸 바위)



출처: <https://blog.naver.com/2www2/10143848975>

현대 사회에서도 진행되는 이러한 의식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 사람들이 이어도에 대해 갖고 있는 신앙적 믿음 또한 외지인의 관점에서

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외지인으로서 선우 중위는 천남석의 자살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한다. 제주 사람들과 이어도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그가 천남석의 자살을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우 중위는 또 다른 제주 사람인 양주호에게 천남석의 자살과 제주 사람이란 사실과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국장님께선 어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이 섬사람이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싫든 좋든, 그리고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 섬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어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 섬을 그지없이 두려워들 하는 게 사실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내 그 이어도를 사랑하고 이어도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어도가 없는 이 섬에선 삶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걸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그 이어도를 만나 이어도로 떠나갑니다. 그것이 이 섬사람들의 숙명이자 구원인 것입니다.” (169)

양주호의 안내로 처음 <이어도> 술집을 방문하게 된 선우 중위는 현실의 공간이 아닌 기묘한 분위기와 함께 일상적이지 않은 분위기의 여인과 대면하게 된다.

좁고 둥글둥글한 얼굴에다 살이 뻗 참빗질로 긴 머리채를 보기 좋게 빗어 묶은 여인의 몸맵시는 마치 무슨 암무당의 외동딸이라고나 해야 알맞을 만큼 야릇한 분위기를 담고 있었다.

“이어도의 미인입니다. 허허……이어도에선 누구든지 이 여자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허허허.” (122)

선우 중위는 <이어도>의 술집 여인이 부르는 노래 가락에 대해서 노인네들이 분명치 않게 슬픈 어조로 울리는 “웅얼거림”(125)이라고 서술한다. 이 작품에서 양주호가 선우 중위를 술집 <이어도>로 안내한 것이나 죽은 천남석이 이곳을 드나들면서 술집 여인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은 사머니즘적 시점에서 볼 때, 단순한 쾌락적 음용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속의 공간에서 마시는 술은 그저 즐거움을 더하고 슬픔을 삭히는 액체일 따름이다. 하지만 신과의 만남을 위해 마련되는 술은 신과의 교감을 위한 것이요 신의(神意)를 알고 감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성한 무구(巫具)다. 그렇기에 제의 현장마다 술은 빠지지 않는다. (장장식 48)

암무당으로 묘사된 술집 <이어도>의 여인이 갖는 이미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청준은 이 작품의 분위기를 무속적인 분위기로 서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통 무속 신앙은 샤머니즘에 토대를 두고 있는 단군신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조선민족은 고초시대(古初時代)에 신시(神市)를 두고 교문(校門)을 삼았다. 천왕환웅과 단군왕검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도 하고, 신격을 가진 인간이라고도 하였다. 옛날에는 무당이 하늘에 제사지내고 신을 섬김으로써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므로 신라에서는 왕의 칭호가 되었고 고구려에는 사무(師巫)라는 칭호가 있었다. 이와 같이 마한의 천군, 예의 무천, 가락의 계락, 백제의 소도,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도 모두 단군신교의 유풍(遺風)과 여속(餘俗)이 아닌 것이 없으며, 이것은 무축신사(巫祝神社)를 말하는 것이다. (이능화 10)

이와 같이, 이 작품에서 제시되는 전통적인 무속 개념은 고대의 샤머니즘에서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샤먼이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육신을 치유해주었듯이, <이어도>의 여인이 이곳을 찾는 제주 사람들의 현실적 고통을 치유해주고, 삶의 위안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대 원시 종교 형태인 샤머니즘적 요소는 제주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사람인 양주호가 이어도 노래에 감동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외지 사람인 선우 중위는 전혀 그 노래에 몰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제주 사람들에게 이어도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 III. 희생제의를 통한 존재성 회복

이청준에게 있어서 이어도는 현실에 존재하는 섬이라기보다는 그의 관념 속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상력의 공간이고, 작중 인물인 천남석의 이어도에 대한 믿음도 상상의 공간을 토대로 두고 있는 것이다(정상균 111). 이것은 선우 중위가 처음 양주호와 함께 술집 <이어도>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파악된다.

양주호를 따라 <이어도> 문을 들어서면서 선우 중위는 자신이 마치 진짜 그 저승의 섬에라도 들어서는 것 같은 이상스런 요기마저 느끼고 있었다. (121)

상상의 공간인 이어도는 제주 뱃사람들의 단골 술집인 <이어도>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하는 천남석의 여인은 샤머니즘의 측면에서 볼 때, 여사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 사람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구체화된 이어도의 구현체가 술집 <이어도>다.

“우린 날마다 이 이어도를 찾아옵니다. 하루라도 이어도를 찾아오지 않으면 못 사니까요. 이어도를 찾아와서 술을 마시고, 이 이어도 여자와 노래도 부르고 사랑도 하면서 하루하루씩을 더 살아갑니다.” (120)

<이어도>의 술집 분위기는 술을 매개로 하여 의식을 치르는 제의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으며, 이어도의 여인은 손님들을 위한 노랫가락을 통해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장양수 22).

이어도하라 이어도하라  
 이어 이어 이어도하라  
 이어 하벤 나 눈물 난다  
 이어 말은 말낭근 가라 (125)

여인이 부르는 이어도 타령은 단순한 노래라기보다는 현실과 죽음의 세계를 이어주는 주술적 행위로서 볼 수 있다. 이것은 폭풍이 몰아치던 파랑도 수색작

전 마지막 날 밤에 천남석을 통해서 들은 이어도의 가사에 곡조를 붙인 이 여인의 이어도 타령은 노래라기보다는 ‘괴상한 것’(125)이라 언급하는 선우중위의 서술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피안의 세계와 이어도가 지닌 공통적 특성은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상된다. 그러나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현실 속 피안의 세계는 <이어도>라는 술집 공간이며, 이곳에서 여인은 현실의 삶 속에서 죽음의 세계이자 영적 공간인 이어도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여사제이자 샤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도가 사람을 홀리는 마술을 지닌 섬이라면, 그리고 그 이어도의 부재가 확인된 순간에 천남석이 비로소 그의 섬을 볼 수 있었을 거라는 양주호의 말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천남석은 아닌 게 아니라 그날 밤 그 이어도에 홀려 스스로 그렇게 섬을 찾아가버린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어도가 이번에는 우연히나마 그 천남석 기자의 죽음을 쫓게 된 선우현 중위에게까지 영똥스런 마력을 뻗치기 시작한 것일까.

잠시 후 선우 중위는 여자의 침묵에 홀려 끝내는 그 여인의 기괴한 비밀의 섬을 보고 있었다. (154)

<이어도> 술집의 여인은 아버지의 부재와 함께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천남석의 결핌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그녀는 천남석과 함께 동거를 하면서 어린 시절 그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과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휴식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선우 중위와 살을 섞음으로써 그가 이어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힘에 의한 작용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선우 중위가 그녀와 하룻밤을 자게 된 것은 아무런 유혹이나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한 이끌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어도라는 강력한 힘이 천남석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 <이어도> 술집 여인은 선우 중위를 보이지 않는 강한 힘으로 끌어당김으로써 선우 중위가 천남석의 입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선우 중위는 이 여인과 몸을 섞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천남석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는 여인을 향해서 천남석의 어머니가

직면했던 운명과 이 여인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발언을 한다.

“넌 이 제주도 자갈밭에서 죽을 때까지 돌을 추리던 여자였을 게다.”

“.....”

“바닷바람에 몸을 벗어 말린 여자다!” (155-56)

선우 중위는 이 여인을 통해서 천남석의 심정을 이해하는 말을 정신없이 쏟아내면서 그가 여인을 제주도 바깥으로 내보내려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선우 중위는 여인과 헤어지는 다음 날 아침에 천남석이 죽음을 선택하게 된 의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157). 그리고 선우 중위는 천남석이 여인이 맞이하게 될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삶을 예견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여인이 선우 중위에게 천남석이 자신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오는 남자에게 운명을 기대라고 했다는 말에서도 파악된다.

천남석은 이 여인이 이어도라는 운명의 고리에 단단히 매여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벗어나서야 이 여인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간파했던 것이다. 선우 중위는 자신이 이 여인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양주호와 이 여인의 운명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면서 이 여인에 대한 부담을 일부러 양주호가 자신에게 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한다. 그러나 양주호는 자신이 맡게 될 수도 있는 이 여인에 대한 부담을 결코 선우 중위에게 넘긴 것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한다(163). 그리고 선우 중위는 여인에게 있어서 천남석의 절대적 존재감에 대해 추궁한다.

“천남석의 존재가 여자에게 그토록 절대적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오히려 그 반대지요. 반대이기 때문에 여인의 운명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운명은 천남석이라는 한 사내가 아니라 그 사내의 섬에 보다 단단하게 붙들려 매여 있기 때문이지요. 여자가 아무리 사내를 바꾼다 해도 그녀는 어느 사내에게서나 똑같은 섬의 운명을 만나고 맙니다. 나 같은 섬 사내라면 천남석도 바랄만한 인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164)

결국, 양주호의 말에 따르면 이 여인의 운명은 섬 바깥에서 섬과는 관련성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인이 이 섬을 떠난다는 전제 조건도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주호는 여자는 결코 섬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그야 물론 여자가 섬을 떠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섬을 떠나고 싶어 한 것으로만 말한다면 여자보다도 천남석 그 녀석 쪽이 훨씬 더 정도가 심했지요. 천남석이 여자에게 그토록 섬을 떠나라고 한 것은 그 여자에 대해서보다 차라리 자기 자신이 섬을 떠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으니까. 섬을 떠나고 싶어 하면 할수록 그는 더 섬을 떠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섬에서 태어나고 이 바닷바람에 씻기며 살아온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섬을 떠나지 못하면서 여자더러만 그러라고 한 것은 이미 그 자신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결국 섬을 떠나진 못합니다.” (165-66)

작품의 말미에서 양주호의 말은 사실로 확인이 된다. 선우 중위는 천남석이 아침 해를 배경으로 동중국해의 거센 파도에 밀려와서 섬을 떠나지 않은 채, 파도 물 끝에 걸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샤머니즘의 시각에서 태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광명사상과 함께 태양을 숭배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최남선 14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천남석이 아침 해를 배경으로 제주도 바닷가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어도라는 제주 사람들의 전통 신앙적 믿음을 지켜냈고 이것이 샤머니즘적 광명사상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고대인들의 시각에서 가장 환하고 밝은 태양 빛이 그들에게 숭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졌고, 이러한 태양신 사상이 샤머니즘과 연결되기 때문이다(김양동 29). 이러한 샤머니즘적 전통은 이 작품에서 남편을 이어도로 떠나보낸 천남석의 어머니가 쉬지 않고, 언덕에서 돌을 날라서 돌무더기를 쌓는 행위에서도 드러난다. 어머니는 돌을 쌓는 행위를 통해서 신앙적 대상에 대한 숭배의식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뺨기에 조그만 발뚱기가 하나 있었다고 했다.

…… 소년의 어머니는 무슨 까닭인지 조그만 발뚱기에서 사시사철 쉬지 않

고 돌을 추려내고 있었다. 언제나 축축한 습기가 묻어오는 바닷바람이 언덕 쪽으로 불어왔고, 소년의 어머니는 날만 새면 그 축축한 습기에 온몸을 적시며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 밧땀기의 돌맹이를 추려내도 시름시름 한쪽으로 긴 돌더미를 쌓아갔다. 그런데 그런 때 소년의 어머니한테선 언제나 또 빠짐없이 이어도의 노랫가락이 흘러 번졌다. (137)

천남석의 어머니가 돌더미를 쌓는 행위는 샤머니즘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 샤머니즘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몽골의 ‘오보’<sup>2)</sup> 즉 ‘어워’ 전통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몽골인은 예로부터 ‘하늘(영원한 하늘, 멍흐 텡게르. 멍케 텡게르)’을 신봉해 왔고, 이와 동시에 대지와 물의 주인을 ‘에투겐’이라 부르며 섬겼다. 몽골인은 비옥한 토지와 풀의 생육이야말로 대지와 물의 주인인 에투겐이 베푸는 은총이라 여겨 대지를 ‘나의 황금 대지’라 부르고 숭배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조상 대대로 정성을 다해 지내 온 특수한 제사를 또한 ‘어워’라 했다. 이는 물론 일반 민중의 풍속인데, 샤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샤먼들은 물의 주인을 ‘로스’ 대지와 흙의 주인을 ‘사브닥’이라 부르며, 그들이 산 정상이나 봉우리, 높은 언덕에 머물고 있다고 믿는다. 바로 그 자리에 약간의 흙을 쌓고 돌과 나무 등을 엮어 장식을 더한 것이 곧 어워다. (장장식 122-23)

주어진 자연의 환경에 있는 대상을 통해서 남편의 무사 귀환과 안녕을 기원하고 있는 천남석의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에 대한 순응적 태도야말로 샤머니즘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

2) ‘어워’는 지금까지 ‘오보’로 알려져 왔고, 오보는 중세음이 그대로 전해내려 온 이름이고, 탑이라기보다는 돌무더기라고 할 수 있다(장장식, 105).

〈그림 2〉 몽골의 어위



출처: 장장식. 『몽골민속기행』. 서울: 자우출판, 2002. p. 122.

초월적 힘에 대한 거스름 없이 현실에서 닿을 수 없는 저 너머의 공간을 합리성을 배제한 채, 인정하는 것이 샤머니즘적 자연 질서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녀의 삶에 대한 샤머니즘적 태도는 천남석이 어린 시절 목격했던 장면에서 제시된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이면 소년은 다른 날보다 대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잠 속에서 소년은 때때로 웅웅거리는 바다 울음소리나 지붕을 넘어가는 밤바람 소리 같은 것을 들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지 소년은 그것이 바다 울음소리나 밤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다시 그 간절한 이어도의 곡조를 참지 못하는 소리였다. (139)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청준이 어머니의 노래 소리를 자연의 소리와 동일시하면서 어머니의 삶과 자연의 삶을 상징적으로 일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작가는 천남석의 어머니가 분명하지 않은 가사나 곡조로 혼자서 노랫가락을 흥얼거린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녀의 노래가 단순히 현실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신비스러운 의식을 수행하는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있다. 천남석의 어머니는 이어도 노래를 통해서 남편이 무탈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원하는 모습이면서 남편이 부재한 현실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잊기 위한 자기 정화 및 치유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을 어린 시절 지켜보았던 천남석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머니의 미신적 신앙

송배 의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유년시절이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 따라서 천남석에게 있어서 이어도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관심의 결핍을 드러내주는 매개물이다.

“선생이 말한 것처럼 천기자는 취재를 떠날 때도 실상 섬이 실재하리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쪽이 옳을 겁니다. 작자도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구요. 그의 취재 목적도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위인은 누구보다도 섬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천 기자는 막상 그가 바랐던 대로 이 세상엔 정말 이어도라는 섬이 실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난 순간에 오히려 그 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무서운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는 섬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거꾸로 그 섬을 만났기 때문에 절망했을 거란 말입니다.” (130)

제주도 사람인 양주호는 같은 제주도 사람인 천남석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는 천남석이 이어도가 발견되지 않고,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기쁨과 동시에 절망감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리고 그의 해석에 따르면 천남석이 제주도 사람들의 내면에서 뿌리 깊이 살아있는 이어도를 상상의 공간 속에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아 그야 물론 그가 본 이어도 역시 실제의 섬은 아니었겠지요. 오랫동안 이 섬에 살아온 이어도란 원래가 그 가상의 섬이 아니었겠습니까. 천기자가 본 이어도 역시 그런 가상의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천 기자는 그때 문득 그 이상스런 방법으로 자기의 섬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오히려 절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 하지만 그건 참으로 황홀한 절망이었을 겁니다.” (130)

양주호는 파랑도 수색작전으로 인해서 자칫 제주 사람들의 삶과 깊이 결부된 이어도가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천기자의 죽음은 이어도를 다시 지켜낸 행위임을 주장한다(130). 양주호의 관점에서 볼 때, 천남석은 제주 사람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어도를 지켜내기 위한 희생제외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다.

천남석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관심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결핍을 드러내주던 이어도가 곧 자신의 결핍된 자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2주일간의 파랑도 수색 작전을 통해서 환상의 섬에 관한 것이 소문에 불과한 것이고,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부터 그는 여유를 잃고 있다(114). 천남석은 선우 중위에게 이어도에 대한 저주를 서슴없이 퍼붓던 인물이었기에 이런 그의 모습은 더욱 납득하기 힘든 모습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이 제주도 사람들 사이에선 또 그 죽음의 섬을 이승의 생활 속에서 설명하려는 망측스런 버릇들이 생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식한 말로 이어도의 꿈이 있기 때문에 현세의 고된 질곡들을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그 섬으로 가서 이승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희망 때문에 이승에선 어떤 괴로움도 달게 견딜 수가 있노라고 말입니다. 죽음의 섬이 구원의 섬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 섬은 이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세의 생활까지 염치없게 간섭을 해오고 있는 꼴이지 뭐니까?” (116)

이어도가 현세의 삶에 염치없이 간섭을 한다는 천남석의 서술은 자신의 유년 시절을 빗대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어도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가 언급하는 모든 이야기는 전부 이어도에 대한 이야기뿐이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가 배에서 사라지기 전에 선우 중위와 나는 대화에서도 이어도에 대한 그의 집착을 알 수 있다.

“어머니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곁에만 가면 전 항상 어머니에게서 그 이어도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전 유년 시절을 온통 그 어머니의 이어도 노래 곁에서 그 소리만 들으며 보낸 것 같아요.”

선우 중위야 듣고 있던 말든 천남석은 그 절망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기이한 유년 시절을 차근차근 들춰내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또 이어도가 이야기의 실마리였다. 실마리뿐만 아니라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온통 이어도와 그 이어도와 상관해서 기억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회상뿐이었다.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이어도였다. 무척도 긴 이야기였다. 그리고 듣고 있던 선우 중위까지도 나중엔 어떤 기묘한 감동 같은 것으로 몸을 떨었을 만큼 절망적인

이야기였다. (118)

천남석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관심은 온통 이어도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로 인해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어도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관심이 이어도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자신의 자아가 이어도에 투영시킴으로써 무의식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희망했다. 천남석은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어도의 부재는 자신의 결핍된 자아가 소멸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인식했던 그는 자살이라고 하는 희생 제의적 행위를 통해서 이어도의 존재가치를 회복시켰고, 이것은 그의 결핍된 자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이어도의 부재가 천 기자의 사고를 낳게 되고 천 기자의 사고는 또 다른 이어도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군요.” (131)

선우 중위는 제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어도에 대한 양주호의 말에 대해 전혀 납득을 하지 못함으로써 천남석의 죽음에 대해서 더욱 이해를 하지 못한다. 혼란스러워하는 선우 중위에게 양주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양주호는 다만 천남석이 섬의 부재를 확인한 순간에 오히려 자기의 섬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곧 사고의 직접 동기인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야 뭐라고 말했든 천남석이 그때 그 자기의 섬을 보고 절망하게 된 이유를 그가 바로 이 음습한 바람의 섬 제주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가장 중요한 대목을 “그 제주도 사람”이라는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을 대신해버렸다. (132)

양주호의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어도는 신앙적 숭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삶의 애환과 함께 현실의 고통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과 같은 존재라는 점이다.

## IV. 결론

제주도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내려 왔던 이어도에 대한 신화적 믿음은 그들이 거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 힘이고, 삶과 죽음을 이어 주는 샤머니즘적 공간이다. 외지인인 선우 중위는 이러한 제주도 사람들의 이어도에 대한 강한 유대관계를 천남석이라는 인물의 죽음을 매개로 조금씩 이해하는 계기를 갖는다. 선우 중위는 그의 죽음을 계기로 남양일보 편집실에서 양주호와 첫 대면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선우 중위는 천남석의 석연치 않은 실종과 죽음에 대한 전달이 아니라, 본격적인 탐색의 과정으로 진입하게 된다. 양주호라는 인물은 선우 중위가 천남석을 이해하고, 제주도 사람들과 이어도에 얽힌 질긴 인연의 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이어도가 갖는 이미지는 삶과 죽음이나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물이다. 제주도 사람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상향적인 섬인 이어도는 살아가는 갈 수 없고, 죽어서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러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한 장치로 추상적 이미지의 이어도를 구체적인 이미지인 <이어도>라는 술집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청준은 <이어도>의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주는 사면의 기능을 구체화시켜주고 있다. 천남석의 어머니와 술집 <이어도>의 여인이 이어도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는 것은 사면이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주거나 혹은 영적 세계를 불러내 접신을 시도하는 주술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사면은 몸짓이나 소리를 통해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소통을 시도하면서 집단이 지니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에 대한 치유와 정화를 담당한다. 술집 <이어도>의 여인은 이어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제주 사람들의 애환을 담아서 노래 가락이라고 하는 주술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작품의 말미에서 천남석의 시신이 제주도 바닷가로 표류해서 돌아오는 장면은 그가 여전히 제주도를 떠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해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선우 중위는 현대 문명의 궤적 속에서 진행되는 현대인의 삶을

속에서 은폐되어 있던 원초적인 감정들과 자연이 긴밀한 교감을 이루면서 위태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어도라는 원시 종교적 제의의 공간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원초적 불안을 제어해주는 장치란 것을 깨닫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천남석은 자살이라고 하는 자신의 희생제의적 행위를 통해서 파랑도 수색작전을 통해서 이어도의 존재가 부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주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 지주이자, 피안의 세계로 인식되어 왔던 공간으로서 이어도에 대한 신앙적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 여사제로서 샤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주 사람들의 현실적 고통에 대한 정화작용을 수행하는 술집 <이어도>의 여인도 이어도에 갔다가 다시 제주도 바다로 다시 돌아온 천남석과 함께 결코 제주도를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안양대학교>

### Works Cited

- 장장식. 『몽골민속기행』. 서울: 자우출판, 2002.  
 [Chang, Jang-sik. *Mongolian Folk Travel*. Seoul: Jawoochulpan, 2002. Print.]
- 장양수. 『이청준 중편 ‘이어도’의 무속적 해석』. 『새얼어문논집』 6: 1993, 179-202.  
 [Chang, Yang-soo. Lee, Chung-jun's Novella. "The Shamanic Interpretations of Ieodo." *Sae-ul Review* 6: 1993, 179-202. Print.]
- 장양수. 『이청준 소설의 세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Chang, Yang-soo. *The World of Lee, Chung-jun's Novel*. Seoul: Hanwool Academy, 2011. Print.]
- 정상균. 『한국최근서사문학연구』. 서울: 집문당, 1996.  
 [Cheong, Sang-geun. *The Latest Korean Epic Literature*. Seoul: Jipmundang, 1996. Print.]
-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서울: 삼성문화재단, 1981.  
 [Choi, Nam-sun. *The Common Sense Question of Chosun*. Seoul: Samsung foundation, 1981. Print.]
- Frye, Northrop. *The Educated Imagination*. Bloomington: Indiana UP, 1964. Print.
- 강준수. 『생태주의 관점에서 본 샤머니즘』. 『문학과 종교』 23.1 (2018): 1-18.  
 [Kang, Jun-soo. "Shamanism from Ecological Viewpoint." *Literature and Religion*

23.1 (2018): 1-18. Print.]

김봉준. 『신화순례』. 서울: 미들하우스, 2012.

[Kim, Bong-jun. *A Pilgrimage to Mythology*. Seoul: Middlehouse, 2012. Print.]

김종주. 『이청준과 라깡』. 서울: 인간사랑, 2011.

[Kim, Jong-joo. *Lee, Chung-jun & Jacques Lacan*. Seoul: Humanlove, 2011. Print.]

김혜영. 「근대소설에 나타난 환상의 존재방식 연구: 이청준의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8 (2002): 301-16.

[Kim, Hye-young. “A Study on Being method of Fantasy in Modern Novel Centering around Lee Cheong-Jun’s I-eo do.” *Korean Language & Literature* 48 (2002): 301-16. Print.]

김종희. 「유토피아소설의 상상력과 현실의식」. 『어문연구』 16.3 (1988): 386-401.

[Kim, Jong-hoe. “The Imagination and Reality in Utopian Novel.” *The Society for Korean Language & Literary Research* 16.3 (1988): 386-401. Print.]

김양동.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 서울: 지식산업사, 2015.

[Kim, Yang-dong. *The Symbols and Interpretation of Ancient Korean Cultural Prototype*. Seoul: Jisiksanupsa, 2015. Print.]

이청준. 『이어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5.

[Lee, Chung-jun. *Ieodo*. Seoul: Moonji, 2015. Print.]

이혜화. 『용사상과 한국고전문학』. 서울: 깊은샘, 1993.

[Lee, Hye-Hwa. *Dragon Thought & Korean Classical Literature*. Seoul: Gipeunsaem, 1993. Print.]

이능화. 『조선무속고』. 이재근 역. 서울: 동문선, 2002.

[Lee, Neung-Hwa. *The Study of Chosun Shamanism*. Trans. Lee, Jae-gon. Seoul: Dongmunson, 2002. Print.]

오주리. 「정지용 가톨릭시즘의 역사적 재난에 대한 반응」. 『문학과 종교』 23.1 (2018): 113-50.

[Oh, Ju-Ri. “Catholicism’s Response to the Historical Calamity in Ji-yong Jeong’s Literature.” *Literature and Religion* 23.1 (2018): 113-50. Print.]

유동식. 『한국 巫敎의 歷史와 構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Yoo, Dong-sik. *The History and Structure of Korean Shamanism*. Seoul: Yonsei UP, 1975. Print.]

## 샤먼의식과 희생 제의로 본 『이어도』에 대한 고찰

국문초록

강준수

본 연구의 목적은 샤머니즘적 접근을 통해서 이청준의 『이어도』에 나타난 희생제의적 양상과 제주 사람들에게 이어도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이어도는 고대로부터 인간의 원초적 욕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포를 극복해주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왔던 샤머니즘적 숭배의 대상이며 동시에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도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강한 집착과 신앙적 믿음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제주 사람들이 거친 바다와 싸워서 삶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뿌리 깊이 박힌 샤머니즘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 속에서 술집 <이어도> 여인은 샤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넋을 위로해주는 주술적 행위로서 이어도와 관련된 노래를 비장한 태도로 부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샤머니즘적 요인들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거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에게 현실의 삶 또한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제주 사람들은 비논리적이고 모순된 현실의 삶의 애환을 치유하고 정화시킬 수 있는 토대로서 이어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주 사람들에게 이어도는 현실의 결핍을 충족시켜주고, 이상적 세계를 꿈꾸게 해주면서 삶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 주제어

이청준, 『이어도』, 샤머니즘, 샤먼, 이상적 세계

### Manuscript Peer-Review Process

Receipt Acknowledged: July. 24, 2018

Revision Received: Sep. 05, 2018

Publication Approved: Sep. 21, 2018